



부산시관광협회 회장단 일행 총렬사 참배
부산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하신 선烈的 영령을 모신 안락동 소재 총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부산시관광협회 국외여행업위원회 대마도서 워크숍 개최
부산시관광협회 국외여행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17일~18일 양일간 대마도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광협회회장 이태섭



新의식문화-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를 알품입니다. 항상 5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노래하는사람들	2F 日式 간장	1F GUESS WHO?	3F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1F 삿뽀로하루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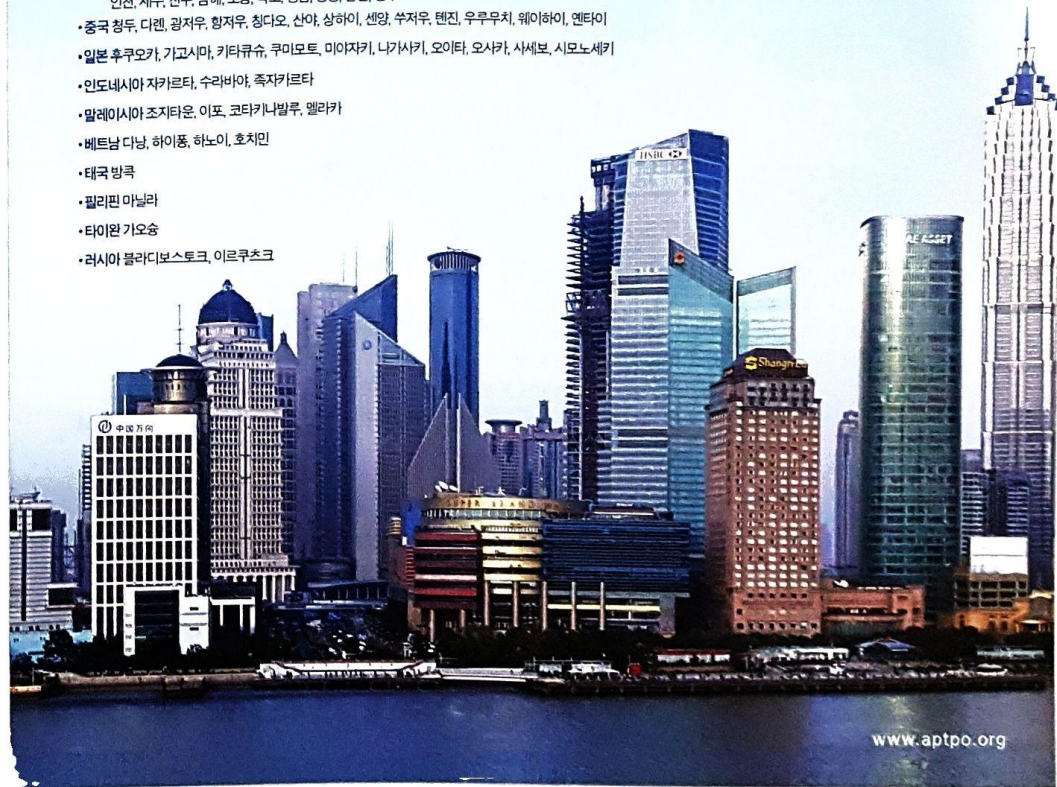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디렌,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기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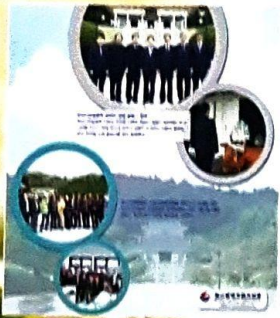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혜식, 이영규, 김종규, 이태연, 김병호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우봉 기자)
발행일 2015년 5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록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TEL. (051)403-3111, 403-3090 FAX. (051)403-0004

편집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0 혁신빌딩 2층
TEL. (051)409-3503 FAX. (051)406-8002
E-mail. bi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09-3563
<http://www.Dcomco.kr>



표지 - 부산시관광협회 회원단 출범식 집회

- 05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 06 부산시관광협회 회원단 임명 취임사 집회
- 07 부산시 관광계 유지 협성의 위해 이근길관 7개 권역별 조성
- 08 부산의-부산전의 일대, 호텔·컨벤션센터, 호텔업, 의료관광도시 조성
- 09 부산의 관광, 문화사 중심 생태 문화 공간으로 변신
- 10 동부산관광단지에 시계열한 관광리조트 건립
- 11 지하철 4개 역동기점 뉴스킨리조트 모선관광 행사
- 12 부산 원도심 주변 전통시장, 관광 활력 되찾기
- 13 부산시의 17곳, 2015년 전통시장 특성의 사업에 선정됨
- 14 해운대-송도-송정해수욕장 6월1일, 광안리-대여도-일광-유원해수욕장 7월의 개장
- 15 관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폭 평균 23m~50m의 확장 계획
- 16 해외관광 최대 지출 국가 중 6인 관광개척 3대 중요시
- 17 해외시 카드 원화결제 매 전사 통합으로 결제
- 18 올해부터 부산불꽃축제 일부 권역의 무료화 추진
- 19 제3회 부산인축제 때 부산현대교 불꽃쇼 펼친다
- 20 영도구 하리항에 해상 워터나 건립 추진
- 21 해안수순부, 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5월 확장공사 착공 시작
- 22 행복한 도시아름 찬사포, 관광 수혜 마을로 세련된 출발
- 23 동해남부선 배산부지 일부 공원의 차입 시작
- 24 해운대 동백섬에 내년 상반기 170m 줄리타리 농장
- 25 관안리해수욕장 끝자락 '민락해변공원' 조성
- 26 동구청, 제1회 조랑 굴뚝축제 개최
- 27 국립부산국악원, 시민·관광객 위해 야외 산실 공연 열기로
- 28 5월, 조선통신시축제, 안동축제, 부산인축제 등 행사 다채
- 29 부산시민공원 개장식, 방문객 1000만명 넘어
- 30 부산-울산, 관광상품 개발 협력카로
- 31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비치 리조트형 건축 붐
- 32 이가네, 피톤치드 방출량 차원유일라 수순으로 나다나
- 33 호텔기 소식
- 34 문화칼럼 :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체의 한 수
- 35 옛 송정역 시민갤러리 문화공간으로 조성
- 37 따뜻한 봄날, 코아일이 운영하는 남도해안관광단지 그 때 그 시절 추억의 거리 특색을 올렸고
- 38 바다의 이정표 1000개 등대 이야기
- 42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찬 관광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후대에 전해 줄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관광회관 건립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

총 기금 적립액 (2015년 5월말 기준) ₩216,710,626					
2013년도 기금 적립내역		2014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1억원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연(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연(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200만원
이사	조용환(한국명품민에서 대표)	200만원	부회장	김해룡(부산해상관광 대표)	200만원
회원	신호연(한국민속식품 대표)	200만원	부회장	김준구(진성관광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김순복(대륙항공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수대(앤쇼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서학연(동방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기현(티블리스 대표)	100만원	이사	김성환(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200만원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사무국 직원	일동	100만원	이사	조용환(한국명품민에서 대표)	100만원
회원	정진수(밴더투어 대표)	10만원	회원	신호연(한국민속식품 대표)	100만원
이사	이봉순(리컨벤션 대표)	1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100만원
회원	장일중(아크투어 대표)	300만원	회원	이수대·이광선(앤쇼핑 대표)	100만원
		합계 사업수입 기금(이자포함)			₩69,610,626

부산관광을 선도하는 강한 협회를 만드는 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협회 발행 각종 간행물과 회관 건립 초석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조성 계좌-
부산은행 101-2024-4232-05 예금주: 부산시관광협회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손비치리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관광협회 회장단 일행 총렬사 참배

지난달 4월초 부산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하신 선렬의 영령을 모신 안락동 소재 총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김해룡부회장, 강석환부회장, 강준구부회장, 이태섭회장, 서학영부회장, 장순복부회장, 박성하시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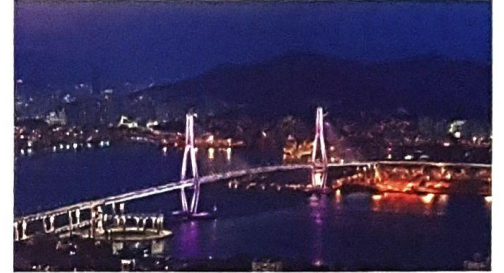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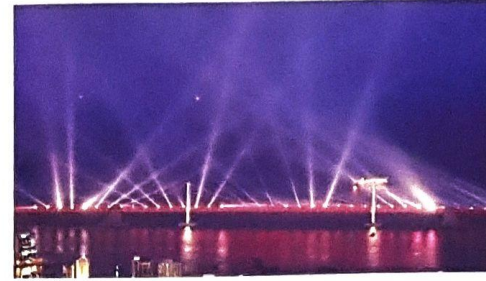


부산시관광협회 국외여행업위원회 대마도서 워크숍 개최

부산시관광협회 국외여행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17일~18일 양일간 대마도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대마도 주요 관광지 시찰과 함께 쓰시마관광물산협회를 방문하여 교류의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양 지역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협의하였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그동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국외여행업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서로 나누며, 앞으로 국외여행업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야간경관 7대 권역별 조성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정체성 담은 가이드라인 수립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부산을 전체 7개 권역으로 나뉜 권역별로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야간경관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야간경관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부산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야간경관 조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심권인 금정산권·황령산권·서면권역의 경우 도심축의 야간경관 형성 유도를 통한 도시미관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시민공원과 동천 등에 대한 야간경관 특화와 야간랜드마크 조성 등을 경관적 특성으로 꼽았다.

가덕~태종대~임랑의 해양수변권역은 친수해안의 야간경관 연출과 야간경관 축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부산의 대표적 해안교량을 야간경관 자원으로 활용해 야간 랜드마크를 연출하고 해안경관과 현수교 등 각 교량별 특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야간관광자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서권역은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조명 연출이 기본 컨셉이다. 여기에 신항만과 신공항 등을 고려해 진입도로와 주요 랜드마크 건축물 등에 부산의 상징적 조명을 더한다는 방안이다.

다대~하단권역은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항 등 야간 이용객들을 고려한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해안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하고 낙동강하구의 자연적 특성도 고려한 야간경관 계획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감만~용호권·북항권역은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야간조망점과 야간 조망루트 발굴을 기본 방향으로, 북항재개발구역의 야간경관 특성화로 관문경관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산복도로 야간 경관 특화에 따른 야간 불거리 조성

을 강조했다.

동래~연산권·해운대~광안권역은 동래읍성 등 역사적인 경관의 야간특화계획과 함께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의 친수경관 이용객을 위한 랜드마크 건축물 야간경관 연출에 초점을 뒀다. 기장권역은 구릉지와 수변환경의 야간경관보호에 초점을 두는 한편 동부산관광단지 등 신개발지역에 야간경관 특화를 주문했다.

시는 이같은 권역별 특화 전략과 함께 산지, 해안, 하천, 가로, 역사문화 경관, 신개발지역 등을 기본으로 하는 6개의 경관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전문가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우용 기자

부산지역 7개 경관권역별 빛의 기본계획

금정산권역, 서면권역, 황령산권역
쾌적한 빛 도심속 야간경관 형성 유도를 통한 미관 중심
해양수변권역
시원한 빛 친수해안의 야간경관 연출과 야간경관 축 형성
강서권역
자연스런 빛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조명 연출
다대~하단권역
해양문화 낙동강 하구의 빛 경관을 제각각 반영한 야간경관
감만~용호권역, 북항권역(원도심)
정갈한 빛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야간조망 해안 형성
동래~연산권역, 해운대~광안권역
맛있는 빛 동래읍성 등 역사적인 경관의 야간특화 계획
기장권역
아늑한 빛 구릉지 및 수변환경의 야간경관 보호

부산역~부산진역 일대, 호텔·컨벤션센터, 쇼핑몰, 의료관광단지 조성 의료관광객·지역주민 힐링 돕는 친환경 공원도 마련



부산시는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부산역 조차시설과 부산진역 컨테이너아자장(CY)은 국제경제 중심지로, 범천차량정비단은 세계적 의료관광단지로 재탄생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산 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전제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의 구상을 보면 부산역 조차시설 자리엔 국제해양업무단지(38만5280㎡)를 중심으로 제2 백스코 역할을 하는 호텔·컨벤션센터(22만1624㎡)가 들어선다.

해양업무단지(최고 42층) 저층부는 아트센터 갤러리 역사문화공원 등 문화시설, 고층부는 국제해양업무시설로 채워진다. 조차시설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1~4층에 정원을 꾸며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부산진역 CY 역시 조차시설과 연계해 해양플랜트를 특화한 융·복합업무단지(57만7816㎡), 백화점과 면세점 등 고급·전문 쇼핑몰(34만576㎡), 비즈니스호텔을 갖춘 상업복합타운(11만4480㎡)으로 꾸며진다. 융·복합업무단지엔 물류유통 연구개발(R&D) 해양벤처 업체들이 입주한다. 시는 이 구간에 기존 복합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3개의 보행 데크 외에 추가로 5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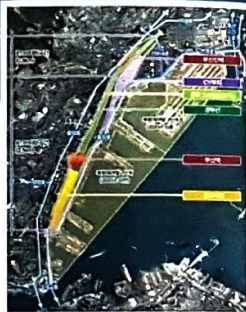
데크를 설치해 산복도로와 북항 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범천차량정비단은 인근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와 연결해 복합메디컬스퀘어(55만5480㎡) 커뮤니티빌리지(21만7160㎡) 멀티콤플렉스(27만9290㎡) 의료업무 지원시설(29만9360㎡)로 구성된다. 메디컬스퀘어에는 재활과 휴양이 가능하도록 종합병원과 오피스텔이 위치한다.

커뮤니티빌리지는 도시형 시니어타운으로 운영된다. 멀티콤플렉스는 호텔·영화관·쇼핑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힐링을 돕는 친환경 공원도 마련된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해양경제특별구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등의 계획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종합개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부산역 광장, 보행자 중심 생태 문화 공간으로 변신 먹고 보고 쉬는 즐길거리 넘치는 U-스퀘어로 꾸밀 방침



부산역 광장 진입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고 보행자 중심의 생태·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부산역 광장에서 역사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스컬레이터를 1층 내부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부산역~KTX 부산역 간 지하 보행통로는 기존 설계보다 28m가량 연장해 1층 출입구까지 연결한다.

그동안 시와 계단·에스컬레이터 이전을 협의해온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시의 사업 방향에 최종 동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에 계단·에스컬레이터 이전 비용 30억 원을 반영하고, 부산역 광장을 먹고 보고 쉬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U-스퀘어'로 꾸밀 방침이다.

시의 U-스퀘어 조성 계획을 보면 부산역 광장의 택시 승강장 상부를 입체적으로 확장하고, 이곳에 '스마트 워킹 존'을 만든다. 고도화 인터넷 설비를 갖춘 스마트 워킹 존은 회의장·

창업 교육장, 카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스마트 워킹 존의 옥상은 녹지로 가꿔 원도심을 잇는 '하늘공원'을 놓는다. 또 부산역 광장 전체에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자원에 접속하는 정보·통신 환경) 기술을 접목해 보행자들에게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내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2017년까지 500억 원(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을 투입해 부산역 일원, 항만, 역세권, 산복도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초량동 상업지역 등 3.12㎢를 정비한다.

시는 특히 이 사업에 북항 1·2단계 재개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등 궁극한 프로젝트들을 연계해 '부산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북항 재개발지~부산역 일원~원도심을 보행자 중심의 개방된 네트워크로 잇는 다는게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다.

김무웅 기자

부산국제금융센터 최상층 개방 부산 동서남북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광명소로 개방



부산 최고층 빌딩인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의 최상층인 63층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여론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는 지역관광광전을 위해 63층을 부산시민들에게 오는 6월23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세계절형 관광리조트 건립 아시아지역 관광객은 물론 유럽지역 관광객까지 부산으로 불러올 것



▲ 동부산관광단지에 유럽형 관광리조트가 들어선다. 부산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피에르바캉스 센터팩스 그룹과 동부산관광단지 내 세계절형 관광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7천억원에 달하고 1만2천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유럽 최대 리조트 건설 및 운영회사이다.

협약에 따라 피에르바캉스 센터팩스는 부산에 신규법인(가칭 PVCP Aisa)을 설립하고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36만여㎡ 부지에 관광리조트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리조트는 지열에 의한 천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리조트'로 800개의 별장형 숙박시설, 레크리에이션 센터, 열대위터파크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팩스는 이번 부산 진출로 아시아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향후 중국과 일본 등 아

동부산관광단지에 유럽형 관광리조트가 들어선다. 유럽 최대 관광리조트기업인 '피에르바캉스 센터팩스 그룹'이 동부산관광단지에 관광리조트를 짓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제럴드 브레몽(Gerard Bremond) 피에르바캉스 센터팩스 회장과 동부산관광단지 내 세계절형 관광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럽에서 300개 이상의 관광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에르바캉스 센터팩스는 연간 매출이 14억 유로(약 1조

아시아지역 관광객은 물론 유럽지역 관광객까지 부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센터팩스 투자유치로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유럽 최대 관광리조트기업 유치를 계기로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해 관광주간 행사 개최 관광협회 지난 1~14일 봄 관광주간, 지역 여행업체와 각종 이벤트 가져

부산시는 지난 1~14일까지 관광주간을 맞아 관광주간 슬로건으로 '봄(春), 부산에 와 봄, 부산을 돌아봄, 부산을 즐겨 봄'으로 정했다.

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구·군,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관광주간 지역협의회를 운영했다. 또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관광주간을 알리고 부산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업계의 홍보를 지원해 상품 판매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스토리 투어, 영화, 야경, 역사, 먹을거리 등을 분야별로 엮어 소개해 가족단위는 물론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

치했다. 인기가 높은 '원도심 투어'의 경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을 지원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왔다.

시는 중구 시티스맛에 관광주간 특별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중구 광복로를 '관광주간 거리'로 선포해 '관광주간 봄'을 일으켰다.

또 부산시 관광협회는 지역 여행업체와 함께 △부산 테마 명소탐방 1박2일 시티투어 △산만디 투어 △부산여행특공대 게릴라 버스 야경투어 등 새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관광주간 동안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시설, 음식,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중화권 최대 유통기업 뉴스킨 단체 포상관광 행사 올 하반기에도 포상관광지 부산으로 정해져



▲ 지난해 중국 포상 관광여행객들이 부산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광안일 바다를 타고 광안일 바다를 지나고 있다.

중화권 판매원 2만명을 보유한 유통기업인 뉴스킨이 오는 6월 부산에서 6천명이 참여하는 단체 포상관광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웨이(1만8천명), 완메이(6천160명), 우센지(2천600명) 등 중화권에서 2만6천여명이 부산에서 단체로 포상관

광을 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22일부터 이틀간 중국 주요기업 10개사의 포상 관광 기획담당자 1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했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팸투어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완다그룹의 계열사인 완다영화원과 완다여행업무자공사, 뉴스킨, 중국 3대 보험사인 태평양보험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요트체험과 야경관광을 하고 회의시설, 쇼핑시설, 관광지 등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들어냈다고 한다.

부산관광공사 마이스(MICE) 관계자는 "부산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청정바다, 맑은 공기, 대형 쇼핑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중화권 포상관광 행사가 더 잇따르고 있다"며 "중화권 주요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팸투어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뉴스킨은 올 하반기에도 포상관광지를 부산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의료관광객 유치위해 10대 특화건강검진 상품개발

부산시와 관광공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 수용태세가 갖춰진 대학병원 3개소, 종합병원 4개소, 전문병원 9개소 등 총 16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대 특화검진상품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10대 특화검진상품은 암 척추·관절, 갑상선 구강 근골격계 뇌 심장 치매 유전자검사, 웨딩사진 상품으로 가격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10대 특화검진상품을 이용한 의료 관광객은 호텔쇼핑 등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 28개소에서 최대 7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와 공사는 부산 10대 특화검진상품 쿠폰북을 러시아어로 발행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리는 해외의료관광 설명회에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와

함께 부산 10대 특화검진상품을 공동 마케팅 할 예정이다. 10대 특화검진상품은 상품별 가격을 명시해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부산 의료관광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개별 환자가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언어권별 특화검진 상품 쿠폰북을 만들어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원도심 주변 전통시장, 상권 활력 넘쳐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부전마켓타운 등 매출 상승

부산 전통시장에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잇따라 찾아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국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국제시장,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시장을 찾은 고객이 많이 늘었다”면서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감천문화마을과 영도 대교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자연스레 시장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제시장을 찾는 방문객은 기존 평일 2만~3만명, 주말 4만~5만명에서 평일 4만~5만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제시장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영화 ‘국제시장’ 촬영 코스를 무료로 안내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시장’ 관광상품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신청자가 10명 이상 단체인 경우 평일도 가능하다.

코스는 남포동 부산종합관광안내소 - 남포사거리 - 비프광장 - 역사골목 - 꽃밭이네 가게 - 부평깡통시장 - 용두산공원 등으로 걸어서 2시간여 거리다. 안내는 원도심 골목투어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스토리텔러 ‘이야기 할배·할매’가 담당한다. 투어신청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bto.or.kr)를 통해 가능하다.

2013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밤에 문을 연 부평깡통시장 야시장 역시 국제시장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개장 1여년 만에 주목받는 야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지난해까지는 평일 2천~3천명, 주말 5천~7천명이 찾았지만 현재는 평일 3천~4천명, 주말 7천~8천명이 찾는 정도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야시장 일대 주차장은 주말이면 국내외 관광객들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 주변 식당 상인들은 손님이 20% 이상 늘었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원도심 일대 전통시장마다 시민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이 어울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부산 원도심 전통시장이 그이말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민공원 및 송심현광장과 인접한 부전마켓타운도 활기로 넘쳐나고 있다. 부산 최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부전마켓타운은 시민공원과 송심현광장 효과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 부전마켓타운 상인회에 따르면 공원 개장 이후 점포의 평균 매출이 5~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부전마켓타운에 들러 간단한 먹거리를 장만하고 일부는 공원 관람 후 반찬거리 등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것. 특히 예전에는 주말이면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던 시장 분위기가 공원 개장 이후 확 달라져 일부 점포는 매출이 2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전마켓타운 상인회 관계자는 “시민공원과 광장 개장 이후 고객이 늘어 매출 증대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잘 찾지 않던 젊은층의 시장 방문이 늘어 시장에 활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와 시장에서 즐길거리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맞고 있어 전국 최고 명물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효령 기자



부산지역 17곳, 2015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한류문화·체험공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중소기업청의 2015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공모에서 부산 지역 전통시장 17곳이 선정됐다.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국제시장에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예산 50억원이 3년간 투입된다.

부산시는 이 예산으로 한류문화 체험공간과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부평 깡통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초량 전통시장과 수영 팔도시장, 총무동 새벽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시장별로 3년간 18억원을 투입해 전통문화 체험장을 만들고, 문화공연과 야시장 운영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봉래, 반송2, 덕포, 개금시장은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됐다.

시장별로 6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과 핵심점포 육성, 안내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락회타운, 시래동, 구포시장, 좌동시장, 부산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은 대대적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중앙 정부 예산 70억원과 부산시 예산 77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81억원 등 총228억원이 주차장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데 사용된다.

시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이룬 시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장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시에서 나눠야 하는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수영팔도시장, 민락씨랜드시장, 남천해변시장 등



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특히, 수영팔도상가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 수영사적공원 등 인근 풍부한 역사자원과 연계해 야시장 개설, 문화공연, 민속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 첫사업으로 올해 4억 2천만원을 투입해 ‘이리 오나라, 먹고 놀자’를 주제로 역사와 전통놀이문화를 접목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민락씨랜드시장과 민락회타운시장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주차장을 조성,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 외에도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망미중앙시장, 남천해변시장 등 10곳에서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소방시설, 승강기 교체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시장상인 의식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수영구는 수영팔도상가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에 총 74억원을 투입해 ‘고객이 행복한 전통시장’으로 특성화한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15년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수영팔도상가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가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 현대화 등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 주

해운대·송도·송정해수욕장 6월 1일 개장 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올해 부산에서는 해운대·송도·송정 해수욕장은 6월 1일 개장에 9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에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백사장 복원 공사로 인한 피서객 안전문제로 지난해보다 한 달 늦은 7월 1일 개장에 9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부산시와 수영구는 지난 11일부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달 10일까지 2만2천의 모래를 백사장에 투입해 백사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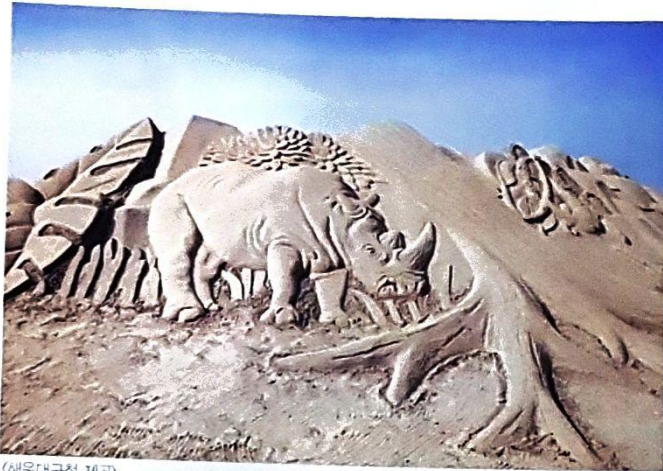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공사는 2012년 11월부터 총사업비 435억 원을 들여 3년간 대대적으로 백사장 복원공사를

벌여 한때 40m로 줄었던 백사장이 100m로 늘어난 해운대해수욕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2014년 12월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는 백사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나 쓰레기 무단투기, 불꽃 놀이, 개장시간 중 흡연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등 프로그램 확대 보급으로 올해에도 해수욕장별보다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50주년 맞아 해운대 모래축제



(해운대구청 제공)

있다. 흥부와 놀부·별주부 전·피터팬·오즈의 마법사·잭과 콩나무·피노키오·알라딘의 요술램프·헨젤과 그레텔·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콩푸펀더 등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백사장 위에 꾸며진 정원으로 동화 '비밀의 화원' 신비한 모래 정원도 선보인다.

이밖에도 '명작 포토존', '샌드 드로잉쇼', '모래 영화관'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50주년을 맞아 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라며 "비수기 때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관광도시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축제를 여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11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행사기간 세계 유명 모래작가 10명이 만든 '모래로 읽는 세계 명작'을 감상할 수

세계 각국 관광객이 찾는 해운대 백사장 폭 100m나 넓어졌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면적이 배로 넓어졌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 폭은 100m다. 한 때 40m까지 줄어들었지만 부산해양수산청이 2012년부터 63만㎡의 모래를 투입하면서 1970년대 모습을 재현했다. 대규모 모래 투입으로 백사장 길이도 70m 늘어 1500m가 되면서 해수욕장 양쪽 고트머리 바위 구간까지 백사장으로 변했다.

이처럼 넓어진 백사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울여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파라솔 개수를 지난해와 같이 6000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훨씬 넓어진 백사장 덕에 파라솔의 간격을 1m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물가와 파라솔 사이의 공간도 기존 10m에서 20m로 배 이상 늘어나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전용 '키드 존(Kid Zone)'도 들어선다. 장소는 '돌밭'에서 백사장으로 변할 열시티 앞이다. 이곳은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어린이가 즐기기에 적격이다. 이곳에는 어린이

용 튜브와 부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어린이 전용 수영장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생존 수영 교실도 키드 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생활스포츠협의회 소속 전문가를 영입해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 생존 수영은 평소복 차림으로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구조원이 올 때까지 깊은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나라 최대 해수욕장의 명성답게 외국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파라다이스호텔 앞 50m 폭을 설정해 파라솔을 아예 걸어낸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축구 배구 등의 운동을 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운대 모래축제 기간인 29일부터 중국인을 위한 '차이나 존'을 운영해 중국 애니메이션 모래조각이나 한류 뷰티 체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세계각국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휴양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폭 평균 23m~50m로 확장 계획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외선 차단 전용 태닝존(일광욕 구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일광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자외선 차단막이 설치된 전용 태닝존으로 피서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 선배드 20개 규모의 태닝존을 조성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유영구역도 마련한다. 마리나호텔 앞 백사장 및 해상 각각 가로 50m, 세로 50m 규모를 장애인·아동 유영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해 샤워장과 탈의실로 활용된다. 또 휠체어가 편하게 백사장에서 해상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이 50m짜리 고무 패드를 설치한다. 이 구역에는 119수상구조대와 구조 장비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음수대도 교체한다. 기존의 낡은 음수대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붉은색 하트 모양 음수대 3

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음수대에는 수도꼭지 5구를 설치해 피서객이 한꺼번에 물러다 빠르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돼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백사장 복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폭을 평균 23m에서 50m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예산 8억7000만원을 확보해 백사장 폭이 가장 좁은 해수욕장 중간 지점에 모래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 국·시비 23억2000만원을 받아 내년까지 모래 4만500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 14곳에 행정기관,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표시된 소규모 안내지도도 설치하는 등 피서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백사장 복원사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편하고, 즐겁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해외관광 최대 지출 국가 중국인 관광객 적극유치

다음달 4~6일 선양판정의료관광 해외 특별전

10월 국경절 맞아 대규모 한류 이벤트 개최

세계 각 도시들은 잇따라 '요우커'를 잡기 위해 부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 역시 '요우커 친화도시'를 선언, 2020년까지 연간 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인 해외관광 최대 지출 국가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인은 1억1천만명, 올해는 1억4천만명이 해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2억명을 넘길 전망이다.

부산 매력 살린 관광상품 개발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민·관·학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보고회'를 통해 요우커 연간 20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한 각종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단순한 '쇼핑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요우커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환경·서비스·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한류 이벤트'를 마련, 구매력이 큰 젊은 요우커의 관심을 끄는 킬러 콘텐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에만 약 6만명의 요우커가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달 11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내 직항도시와 내륙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현지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이 가진 바다의 매력을 적극 어필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바다를 접하기 힘든 시안, 충칭 등 중국 내륙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티파니21, 팬스타, 마이더스720, 더베이101 요트 등 연안크루즈를 타고 부산야경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적극 알릴 계획. 특히 급증하는 자유여행 요우커를 겨냥해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며 낚시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낚시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 낚시협회와 낚시 스포츠 채널, 낚시 전문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낚시 관광코스 팸투어를 실시했다.

골프를 즐기는 중국인들을 부산으로 유치 하기 위한 골프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한다. 최근 부산~시안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에어 부산 항공편을 활용한 골프관광상품 '출인원 부산'을 선보여 요우커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중국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음달 4~6일 중국 라오닝성의 성도인 선양과 판진에서 대규모 '의료관광 해외특별전'을 연다. 부산의 의료기관과 여행업체, 미용업체 50개사와 중국의 의료기관, 여행사 10개 기관이 참가하는 이 행사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부산시 요우커 유치 위해 현지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추진

부산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 100억 원을 들여 초대형 K팝 콘서트,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와 연계해 현지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이 있는 10월 한류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대형 K팝 콘서트를 메인이벤트로 전시회,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새 한류 이벤트를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와 연계해 한달 내내 이어지는 대형 행사로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유커를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기간 유커 방문객이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현지 마케팅에 나서 불꽃축제 등 부산 관광상품을 알리고, 1억 4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리프(Ctrip)' 여행사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총 50억 원의 부산형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며 계절별 지역축제 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서 카드 원화결제 때 현지 통화로 결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 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진다.

미국에서 1천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천920원으로 현지 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천원(약 7.1%)을 더 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

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는 해당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DCC 서비스가 자동 설정돼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페이팔에 들어가 'My Account', 'Profile', 'My money' 순으로 클릭하고 'My preapproved payments의 Update'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Set Available Funding Sources'에 이어 'Conversion Options'을 클릭 한 뒤 'Bill me in the currency listed on the seller's invoice'를 선택해 현지 통화로 결제로 변경 후 'Submit'을 누르면 된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한국에서 접속할 때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 내기 있는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해국제공항, 이용 승객 폭발적으로 증가

올 1/4분기, 지난해 비해 12.4% 증가한 281만명 사상최대 실적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개항 이래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을 앞지르며 이용객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한국항공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1월 50만8천64명, 2월 44만9천326명, 3월 45만7천207명으로 1분기 석달간 141만4천59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5천96명보다 20만9천510명이 늘어났다.

올 1분기 김해공항을 이용한 전체 승객은 281만6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0만197명보다 31만421명(12.4%) 늘어났다. 올 1분기 동안 국내선 이용객이 7.8% 증가한 반면 국제선은 17.4%가 늘어 국제선 승객 증가폭이 국내선보다 배 이상 많았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증가율은 인천(16%)이나 김포공항(8.5%)보다 가파른 성장세다.

김해공항의 여객 증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김해발 노선 개설에 따른 신규 항공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이 신규 취항한 이후 주452편(29개 도시)이던 국제선은 주858편(33개 도시)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제선 이용객은 74만2천여명에서 141만5천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선 역시 KTX 2단계 개통에 따른 승객 이달로 김포 노선 여객이 3.7% 감소했으나 제주노선이 7.5%나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해공항 청사는 이미 지난해 수용한계치를 넘어섰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행이 더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부산불꽃축제 일부관람석 유료화 된다 관광상품화로 7억4천만원 관람료 수입예상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는 일부 관람석이 유료화로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상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산시는 '불꽃축제의 국제화와 관광 상품화 원년'으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불꽃축제의 체류형 관광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일부 관람석 등에 대한 유료화가 된다고 밝혔다.

관광상품화는 불꽃축제를 보러 부산을 찾은 외국 또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권 확보, 축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관광상품화는 일반형과 고급형 두 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일반형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되는 관람석 8만2천㎡ 가운데 최고 명당으로 꼽히는 해수욕장 입구 백사장 5천860㎡(길이 143m, 폭 41m)에 1만명을 수용하는 유료 관람석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불꽃축제 일반형 유료 좌석을 R석(10만원(1000석), S석(7만원(9000석))으로 결정하고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애초 R석(1000석, 10만원), S석(2000석, 7만원) A석(7000석, 5만원) 등 3단계로 나뉘던 좌석을 2단계로 조정한 것이다. 일반형 좌석 관람객에게는 기념품과 무릎담요, 방석을 준다. R석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설치한다. 일반형 좌석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7.1% 공구(5863㎡)에 143×41m 크기로 마련된다.

시는 우선 S석 중 6000석을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팔고, 3000석은 인터넷으로 개별 판매할 예정이다. 전체 유료 좌석 1만 석 가운데 1000석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배려한다. 시는 일반형 유료 좌석 판매로 7억3000만원가량 수입을 얻고, 이를 올해 불꽃축제 연출 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6억 8000만원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불꽃축제의 총 예산은 24억4000만원이다.

연출공간도 바뀐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외 해운대 마린시티 등 다른 지역 관람객을 위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U'자형 연출 무대를 동백섬, 광안리, 이기대를 잇는 'U'자형 연출 무대로 확대한다.

불꽃 연출 진행 방식도 일신한다. 멀티불꽃쇼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연출 시간을 기존 50분에서 35분으로 줄이는 대신에 15분짜리 이탈리아 불꽃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불꽃팀 초청 공연을 추가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관광상품화로 총 7억 4천만 원의 관람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서영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사무처장은 "불꽃축제 유료화는 조직위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부산을 찾은 외국 또는 외지관광객에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권을 제공함으로써 숙박·체류관광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불꽃축제 생중계 권역을 기존 부산에서 경남·울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방송을 통해 세계 130개국으로 실황을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

제8회 부산항축제 때 부산항대교 불꽃쇼 펼친다 29~31일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대, 해상안전체험 등 시민·관광객 참여행사 다채

우리나라 대표 항만인 부산항을 널리 알리고 해양레포츠 확산을 위한 '제8회 부산항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높이 70m의 웅장한 부산항대교에서 처음으로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개막식부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9일 오후 7시50분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은 터치버튼, 개막공연, 해상안전멀티미디어쇼, 불꽃연출 등으로 진행된다.

또 부산항대교에서 오후 9시30분부터 10분간 펼쳐는 불꽃쇼는 북항재개발 등 새로운 '부산항 시대'를 여는 축포의 의미로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올해 부산항축제는 해양·항만·수산 분야 3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해 해양체험·전시·공연 등 3종 24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어느 해보다 알차고 편안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부산으로 이주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과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축제의 인기 행사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선박 항해 시뮬레이터 체험, 해양영토정보체험, 해양환경 체험 등을 통해 해양



▲ 부산항을 널리 알리고 해양레포츠 확산을 위한 제8회 부산항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제7회 부산항축제 참가자들이 선박 체험, 선박 항해 시뮬레이터 체험, 부산항투어를 즐기는 모습.

관련 지식을 실감나게 배울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범선 누리마루호와 항만안내선 새누리호를 타고 아름다운 부산항을 둘러볼 수 있는 해상투어를 축제기간 동안 진행한다.

우리나라 해운·항만단체와 관련 법인으로 구성된 전국 해양산업총연합회는 축제 마지막날 '부산항 한마음 걷기대회'를 연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걷기대회는 관광명소인 태종대 일주 코스에서 진행한다.

이밖에 퍼레이드 공연, 상설 공연, 시민 참여 무대, 해양·항만 관련기관 홍보관, 채용부스 등도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영도구 하리항에 해상 낚시터 건립 추진 태종대 등 지역관광지와 연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든다

부산시가 영도구 하리항 일대에 해상 낚시터 건립을 추진한다. 낚시터는 하리항 해상 낚시 부속시설인 조성 기본계획을 역을 따라 내년 6월 15일권을 타종대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건립하고 최근 밝혔다.

해상 낚시터가 조성되는 영도 하리항 부근은 접근성이 좋아 해상 낚시 시설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또 하리항에 바다 낚시터를 비롯해 낚시 집고, 휴게 편의시설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영도 하리항을 시작으로 사하구 물동, 서구 송도, 해운대구 마포항 등 곳곳에 해상낚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로 시는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상 낚시터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낚시 부속시설을 태종대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낚시관광, 선진화 방안연구

부산시는 낚시 관광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족 낚시터를 유도하고 낚시 장비를 낚을 프로그램을 개발, 낚시 관광 선진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낚시 관광 선진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109억 원을 투입해 낚시 체험공원·태다르크 등 11개 시설을 조성하

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대는 부산·경남지역 낚시, 낚시 관련 127명을 상대로 낚시 관광 인식도를 조사했다.

이들은 낚시를 한 번 할 때 39만~52만 85.1%를 쓰며, 낚시 비용이나 양과 관련해 39.4%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가 동호회나 지인의 도움을 51.5%으로 낚시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들 대부분은 비 전문가·대다수로, 여가 활동을 위해 낚시에 참여하고 있다.

태다도 연계 낚시 관광상품 개발

부산과 태다도를 연계한 낚시 관광상품이 개발된다.

부산관광공사는 태다도와 부산을 오가며 낚시 투어를 하는 낚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관광상품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부산을 거쳐 태종대 등에서 낚시체험을 하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일정으로 짜졌다.

부산관광공사 마케팅 담당자는 "중국의 낚시 애호가들이 태종대 연안까지 추산되지만, 중국 현지 해양 오염 등으로 국외 낚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부산 낚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웅 기자

해양수산부 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5월 확장공사 용역 시작



▲ 동삼동 국제크루즈부두 확장공사 현장

해양수산부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는 540억 원을 투입해 현재 부두길이 360m, 수심 11.5m로 8만톤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동삼동 부두를 오는 2018년까지 22만톤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부두를 확장하

고 공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2008년 7월 준공된 바, 최근 크루즈선의 초대형화로 시설부족이 지적되는 실정을 감안해 오는 7월 북항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부산항 국제크루즈부두 및 동삼동 부두 10만톤 규모에 그쳐 오는 7월 입항할 예정인 아시아에서 가장 큰 17만톤 중형호는 이를 크루즈부두가 아닌 다른 컨테이너 전용 부두부터 3년 선착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수부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대선 우리나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가 부족했다"며 "이번 동삼동 크루즈부두 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외 경쟁력이 될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삼동 부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종대 유원지 해양생태관광지 개발방안 추진

부산시가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를 민간 주도의 해양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태종대, 용복합 해양생태 관광지로 육성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태종대를 경관 감상 일면에서 '모험과 체험'의 장소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부발연의 제안을 보면 태종대 해안 수렁대에는 나무 널빤지를 연결해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 급경사지에는 합계열차를 도입해 바다와 숲을 조망하여 노약자·어린이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절벽에 캔틸레버(한쪽만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돌출된 구조물) 형태의 탐방시설을 설치한다. 태종대가 국가 지질공원 중에서도 희귀한 자원을 많이 보유한 점을 내세워 지질박물관도 세운다.

해양수산부가 2011~2014년 영도구 동삼동 50억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과 연계해 태종대에 관광용 바다모형을 짓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곳에 사냥하는 해양 동식물을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통해 체험하도록 해 해양레포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도 담겼다.

이 같은 밑그림은 북항·남항·물은대·이거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태종대를 부산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게 최종 목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부발연 송교목 선임연구원은 "태종대는 숲, 자갈염소, 바다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춘 거점 해양생태 관광지로 '최적'이라며 "공공주에서 벗어나 민간이 해양생태산업을 이끄는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깡깡이 마을' 국가지원사업으로 관광자원화 추진

부산 영도구 대평동 '깡깡이 마을'에 대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한 관광 자원화가 추진되고 폐허가 된 조선소와 배수리 공간이 리모델링돼 근·현대 역사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영도구는 이같은 내용의 '영도대교 중심사가지 활성화 프로젝트'를 2016년 국가지원 중심사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도대교 중심사가지 활성화



프로젝트는 반집과 상가가 많은 영도대교 건너편 지역을 활성화해 자갈치시장, 남포동과 삼각 촉을 이루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술인상상마을이 조성돼 있는 흰여우마을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영도대교 활성화 프로젝트가 국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 중심사가지형으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원과 시·구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관광 선도마을로 새롭게 출발 6월, 방파제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관광객 접근성 높혀



▲ 최근 완공된 해운보도교 앞에서 내려다본 청사포 전경

도심 속 작은 포구마을 청사포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사포 마을이 활기를 띄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이 그해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면서 국비와 시비 등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

작되면서부터다.

관광 선도마을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기반 시설 조성도 마무리 단계다. 달맞이언덕에서 청사포로 내려가는 84m 길이의 해송교에 추가로 인도를 만드는 해송보도교가 최근 완공됐으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을 잇는 7.8km 구간의 달맞이언덕 산책로가 14년 만에 모두 연결됐다.

해송보도교에는 청사포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했다. 또 청사포 진입부부터 해안도로까지 구간별로 도로 중앙 분리화단을 설치하고 노후한 보도를 정비했다. 청사포 진입부에는 해맞이와 달맞이 명소의 의미를 담아 청사포의 이정표가 되어줄 상징물도 설치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청사포에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청사포의 방파제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방파제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끝으로 마을 재생사업은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

이효영 기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부 공원화 사업 시작 시 나머지 구간도 시민위한 공간되도록 노력할 것



부산시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9.8km 가운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에서 부산기계공고간 1.6km 구간을 공원화하는 설계를 끝내고 8월부터 본격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은 시는 오는 6월 추경예산에서 2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더 확보, 이르면 8월 착공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에는 폭 2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해운대로와 평행선이 되는 1.35km 구간에는 폭 2.5m인 자전거도로를 함께 만들 예정이다. 쉼터 4곳과 다양한 운동 시설을 갖추고 산책로 좌우에는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갖추게 된다.

나머지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해운대구 미포에서 옛 송정역까지 4.8km 구간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개발 방식을 협의해 산책로를 반드시 넣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에 이견이 없는 구간을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구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해운대구 구남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본격화 '머물고 싶은 거리'로 변모, 국내외 관광객 모은다

해운대 원도심 상권의 중심지인 구남로를 '머물고 싶은 거리'로 변모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 설계구역에 착수했다.

옛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르는 490m 길이의 구남로 일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텔 등이 밀집해 해운대 상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구는 구남로를 부산의 대표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기본 구상안으로 △보행자 중심의 특화된 가로 환경 조성 △거리 전체의 통합된 디자인 설정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개념 반영 △축제 등 이용성과 공간 확장성을 고려한 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여 양 측면 보도를 확장하

거나 도로 한가운데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량 통행량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민과 관광객들이 머물며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운대구는 용역 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최종 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기장에 '한식민속촌' 조성사업 추진 삼바축제 버금가는 한국대표 관광상품으로 사업추진

부산시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 사업으로 한식민속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 농경문화 한식민속촌 조성사업'은 1950년대~1970년대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 9대 명절과 24절기, 세시풍속에 맞춰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항상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한식민속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단순히 보고 체험하는 기존의 민속촌을 넘어 민속촌 내에서 실제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까지 3천500억 원을 투입해 민속촌을 조성한 후, 민속촌 내 단지를 분양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이들이 음식과 제품 판매, 숙박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사는 살아있는 민속촌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한식민속촌의 입지를 기장군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경우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계해 기존 관광객의 4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2017년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송상현광장에서 출발해 부산시민공원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리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의 농경문화와 민속문화를 즐기는 것은 물론 브라질 리우 삼바축제에 버금가는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대현 기자

해운대 동백섬에 내년 상반기 120m 출렁다리 등장 인어상 전망대-누리마루 전망대 간, 관광명물로 부상할 듯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 내년 상반기 120m 규모의 '출렁다리'가 등장할 전망이다. 동백섬 출렁다리는 중국인을 비롯,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해운대해수욕장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는 동백섬 출렁다리의 규모와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곧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출렁다리는 동백섬 인어공주 인근 전망대부터 누리마루 방향의 전망대까지 길이 120m로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출렁다리의 높이는 용역

을 통해 결정한다. 구는 올해 국비와 시비 13억 원을 확보한 뒤 추경예산 5억 원을 편성해 총 18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관광업계도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백섬 자체가 광안대교와 마린시티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데다 바다 위를 직접 걷는 출렁다리까지 들어서면 관광상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바다 위를 출렁다리를 통해 건너면서 느끼는 스릴감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렁다리가 생기면 중국인뿐 아니라 동남아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단순한 바다 관광용이 아니라 웨딩 상품 등 해운대 일대와 관련한 다양한 관광 상품 구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바다 위를 가로 지르는 출렁다리는 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명물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해운대가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도해수욕장 바다위 걷는 스카이워크 다음달 등장

송도해수욕장에 바다 위를 걷는 '송도판 스카이워크'가 조성된다.

서구는 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오는 6월에 맞춰 길이 104m, 폭 2.3m의 해상산책로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5.5~8m 높이 바다 위를 걸 수 있는 해상산책로는 구가 2013년 말 착공한 '송도지구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사업'의 시설물이다. 특수 강판으로 만들어 튼튼한 데다 미관이 뛰어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을 가져와 바다에 고정하는 방식이라 공사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도 없다는 것이 산책로의 특징이다.

현재 안전 난간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철제망 구조인 매직 그레이팅과 강화 유리, 원목 데크로드로 산책로 바닥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화유리나 매직 그레이팅 구간에서는 오투도 스카이워크처럼 걸으면서 발아래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방문객은 데크로 위를 걸으면 된다. 울여름 등대구간에 이어 내년엔 192m 길이의 '잔교 구간'도 추가로 설치·개방하면 거북섬을 중심으로 300m가량 길이의 바다 위 산책로가 완성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산책로가 송도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 끝자락 '민락해변공원' 조성



광안리해수욕장 민락동 회센터 앞에 친수공간이 조성됐다. 민락해변공원으로 이름 지어진 이곳은 광안리해수욕장 연안정

비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으로 거듭났다. 총 사업비 24억 6천만 원을 들여 민락동 오션브릿지 앞 바다를 일부 매립하고 길이 208m, 면적 3600㎡(1100평) 규모의 친환경 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대신 계단형 목재데크를 이용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해 어느 방향에서나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테마거리와 연계성을 높여 산책코스로도 그만이다.

특히, 노후되고 낙후된 호안시설을 정비해 태풍 등의 내습시 월파 등에 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도 한 몫 할 수 있게 되었다.

민락회센터 앞 해상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 관광객 유입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수영구는 최근 부산시에 민락회센터 앞 해상에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대상지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5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매립 계획을 신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락매립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의 규모는 1만4300㎡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다. 수영구는 2016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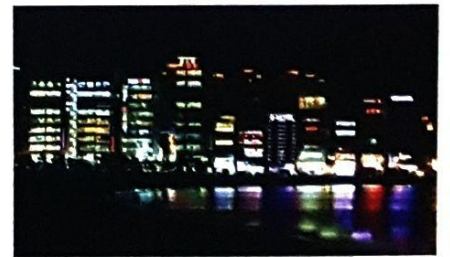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8000여만 원을 들여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매립지의 전체 폭은 57m로 바다 쪽 39.5m는 월파 저감 효과를 가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17.5m는 태풍 등 자연재해시 월파를 억제하는 한편 보행자 통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든다. 또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1000㎡ 규모의 소규모 계류시설도 들어선다.

구는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높은 방파제를 철거해 광안리해수욕장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

존 방파제에 사용된 테트라포트는 수변공원 앞 해상으로 이동해 높은 파도 등 자연재해를 막는 데 사용한다. 또 새로운 볼거리·놀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수변공원은 평소에도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차별화한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 때는 높은 파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청, 제11회 초량 골목축제 개최

초량 이바구길, 전통시장, 돼지갈비 골목일대(6월12일~14일 까지)

동구청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초량 이바구길, 초량전통시장, 초량돼지갈비 골목 일대에서 제11회 초량골목축제를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량골목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축제와의 차별성을 두고 개항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골목이 주는 삶의 의미와 느낌의 미학을 부각 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초량골목축제 김중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존의 축제가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의 축제였다면 이번 골목축제는 방문객들이 직접 골목을 걸어 다니며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에게 정겨운 놀이문화를 줄 수 있도록 축제를 꾸렸다"고 말했다.

초량골목축제는 초량탑마트 앞 도로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장팀·골목팀·차이나타운 팀으로 나누어져

팀대항 줄다리기 시합을 연 뒤 초량 100년사 쇼, 청소년 끼 발산 대회, 금혼식 이벤트, 딱지·구슬치기 대장 선발대회, 영상편지 코너, 추억의 놀이마당 등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미세스 동구도 선발하고 2천 명분 대형 비빔밥 시식회 등을 열어 전 연령대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동구는 초량골목축제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을 잡을 역량을 키운다는 생각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초량전통시장 및 초량이바구길 등 구 축된 거점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크루즈터미널 개장 이후 관광객 방문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화려한 관광지보다 특색있는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초량은 부산 어느 곳보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국립부산국악원

시민·관광객 위해 야외 상설 공연 열기로

7월 해운대 등 관광지서 주 6일, 크루즈선 공연 10회→20회 확대



▲ 지난해 크루즈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린 '뷰티풀 코리아 공연 중 꽃니부동청놀이 모습(사진:부산국악원 제공)

국립부산국악원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야외 상설 공연을 열기로 했다. 부산국악원은 오는 7월부터 국악원과 해운대 등 관광지에서 '뷰티풀 코리아,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주 6일간 상설공연을 선보인다. 관광·국제도시 부산의 문화 경쟁력을 드높이고 한국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설공연만을 위한 단원을 따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 부산을 찾는 크루즈관광객을 위한 공연인 '뷰티풀코리아' 공연횟수도 기존 10회에서 20회로 배로 늘려 진행한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취소된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축제 관련 한일교류 기획공연을 올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국악원은 이를 통해 일본 전통 음악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악 공연의 다변화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국악원 인근에 있는 부산시민공원과도 연계 사업을 진행해 시민이 다양한 국악 공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인화 부산국악원 원장은 "국악원과 국악 공연이 생소하거나 어렵지 않고 누구에게나 즐겁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량 산복도로 168계단, 8월부터 모노레일 운행

산복도로 관광활성화에 효자노릇할 듯

부산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서 '이바구길' 168계단에 8인승 모노레일이 생긴다. 부산시는 168계단에 길이 60m, 폭 7m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 공사를 시작,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31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이 모노레일은 계단 밑과 꼭대기뿐만 아니라 중간 지점에도 정거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초량 168계단은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이 서린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모노레일 주변에 1950~1970년대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 4곳도 만든다.

초량 산복도로 '이바구길' 168계단에 모노레일이 개통하면 이바구 정거장, 김민부 전망대, 정기려 더 나눔센터 등 이바구길 주요 명소에 손쉽게 갈 수 있어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에 모노레일 운행이 시작,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산복도로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부산 중구청 뷰티관광특화사업 추진

중구는 최근 뷰티관광특화사업을 추진해 광복로와 남포동, 중앙동 일대를 '뷰티 투어'의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광 상품이 부족한 한계를 '뷰티 인프라'로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 관광객은 오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뷰티 관광이 이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시간을 틈새시장으로 삼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뷰티특화업소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지역 내 미용실 210곳, 피부관리숍 62곳, 네일관리숍 24곳 등이 그 대상이다. 영업 가능 시간, 영업 형태, 영업 시설 등을 비롯한 27개의 주요 항목을 점검해 적합한 업소 15~20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과 영업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 가격과 서비스의 표준화를 꾀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격 덤터기를 씌우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선정된 업소는 표시판을 부착하고 관리·점검을 받게 된다. 한국관광공사와 부산종합관광안내소 등의 홍보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되는 혜택도 누리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질 좋은 뷰티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뷰티관광이 관광상품으로 정착되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5월, 조선통신사축제, 연등축제, 부산항축제 등 행사 다양



▲ 5월 부산에서 국제 피라미드가 펼쳐진다. 조선통신사축제를 비롯해 연등축제, 오륙도국제 금강산악회 공국축제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 사진은 조선통신사축제를 대표로 본지인 조선통신사 (전라 피라미드 모습)

5월은 여행과 축제의 계절이다. 부산은 어느 때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 조선통신사축제, 연등축제, 부산항축제 등 대형 축제가 잇따라 열렸다.

5월 축제의 시작은 조선통신사축제가 열렸다. '2015 조선통신사축제'는 5월 1~3일 용두산공원·남포동일대에서 조선과 일본 막부의 평화수절단을 맞이했던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공존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축제. 부산시민들과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다.

'부처님 오신 날'(5월25일)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는 5월 1~25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과 중구 광복로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송상현광장에서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3일간 다채로운 체험·공연행사가 열렸다.

또 17일까지 연등장식 3천여점을 설치, 밤마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11일부터는 광복로가 주무대. 25일까지 광복로

일원을 연등 3천여점이 밝혔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17일 저녁 7시 30분 광복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부산시민 수만명이 손에 연등을 들고 구덕운동장~국제시장~광복로~대청로까지 걸었다.

남구는 5월 2~3일 백운포체육공원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일원에서 '제19회 오륙도축제'를 개최, 2일 오후 2시 부산환경공단남부사업소~이기대~오륙도앞~백운포체육공원을 걷는 '오륙도사랑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프리리저너블, 전통성년례, 백일장, 나도 스타, 오륙도가요제, 현장이벤트, 해군의장대, 군악대 공연, 인기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오륙도운동회 등을 선보였다.

5월 봄축제의 마지막은 부산항축제가 장식한다. 5월 29~31일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 및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 축제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부산항!'을 주제로 3일간 25개의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선보인다. 대형 해군함정 등 군함을 타 볼 수 있는 '승선체험'은 놓쳐선 안될 축제 하이라이트. 또 올해부터 축전행사로 15분간 불꽃행연이 벌어진다.

이밖에도 한국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에서는 5월 15~17일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열렸다. 전통줄타기 공연, 동문병영 체험 등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2015'는 22일~24일 금정산성 일원에서 열렸다. 5월 29~31일 북구 회명생태공원 일원에서는 '낙동강 구포나무 축제'가 열려, 구포국수 만들기, 구포나무 뗏목타기, 황포돛배 시연, 전통시장 재현, 당나귀 마차 체험 등을 진행한다.

김무웅 기자

부산시민공원 개장1년, 방문객 1000만명 넘어 역사·문화·자연·휴식 공존하는 '시민쉼터, 문화공연' 등 줄이어



미는 것 방문객들은 전문 예술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작품, 공예품, 생활창작품을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18일 처음 문을 연 아트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 운영한다. 첫 아트마켓에서는 대한민국 5대 캘리그라피스트 이동기 선생의 작품과 시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예술가 120여명이 작품 1천500여점을 선보여 300여점을 거래했다.

부산시민공원 아트마켓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전국 예술가들은 현재 200여명이지만, 홈페이지

(citizenpark.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트마켓은 예술작품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인디음악, 퍼포먼스, 마임, 전통춤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신기한 전시·흥겨운 공연 잇따라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지난달부터 있는 '와일드라이프 사진전'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자연생태계 보전 프로젝트에 공헌해 온 세계 최고 야생 사진가들의 주요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는 이 전시회는, 신비로운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마련한 전통문화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도 흥겨운 무대다. 부산지역 전통문화예술단체가 일요일마다 '흔적극장'에서 펼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사물놀이와 전통 악기가 어우러지는 공연 전통탈 그리기, 제기치기, 투호 같은 전통놀이 체험마당도 함께 열려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김대현 기자

지난해 5월1일 문을 연 부산시민공원은 1년 동안 평일 평균 3만여명, 토·일·공휴일 9만여명이 방문, 지난 3월까지 부산시민공원을 다녀간 방문객은 1천22만8천여명에 달한다.

부산시민공원을 찾은 이들은 자유롭게 공원을 산책하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거나, 예술가들이 내놓은 작품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했다. '여름밤 추억의 낭만콘서트', '빛나는 공원음악회 릴레이 콘서트' '국악한마당', '피아노 숲에서 놀다'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1년 내내 이어졌고, '공방아트페스티벌'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잇따른 덕분이다. 부산시민공원은 지난 1년간 '문화쉼터'이자 삶의 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야말로 시민의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무 뿌리내려 올 봄 꽃 천지

부산시민공원은 개장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와 문화공연, 예술시장, 문화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 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대규모 예술시장인 '부산시민공원 아트마켓'을 매주 토요일마다 연다. 부산시민공원 '문화의 숲길'을 중심으로 공원 전체를 전시장으로 꾸



부산·울산, 관광상품 개발 협력키로 동남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고래다이어행 크루즈선이 지난 7월 오전 창성포항기점 북동방향 9마일 해상에서 침몰고래대 3천 마리를 발견했다.

부산과 울산이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요우커(중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는 요우커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금액도 중국인이 2천272달러로 미국인(1천470달러), 일본인(880달러)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요우커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협력

키로 했다. 우선 부산과 울산의 관광·의료 관련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두 도시를 연계하는 대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태스크포스는 부산의 해양·축산·의료·쇼핑 인프라와 융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쳐 요우커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요트와 울산의 고래탐방을 해상체험 관광상품, 부산의 야경 크루즈와 울산의 간절곶 유람선을 접목한 크루즈 관광상품 등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의 의료관광, 국제영화제와 울산의 산업현장, 임각화, 웅기마을, 영남일프스 등을 조합한 관광상품도 개발해 요우커들을 불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80만명 이상의 요우커가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인 40만명이 크루즈를 타고 입국할 전망이다. 지난해 크루즈를 타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4만명에 이르며 이 중 76%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이번 부산·울산 관광발전 태스크포스 구성은 두 도시의 상호 발전시대를 열어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수영구, 수영강~광안대교 유람선 도입 추진

수영구가 부산 광안대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해상 투어 유람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8700만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마리나 시설 확충 및 야경 유람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광안대교 진입램프 쪽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을 출발한 유람선은 광안대교를 거쳐 수영강 하구를 오간다. 또 광안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는 중·소

형 유람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운대구 동백섬 '더베이 101'과 남구 용호동 '삼주 다이아몬드베이'가 지난해부터 각각 대형 요트와 유람선을 이용한 광안대교 야경 투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다른 해상 투어와 달리 수영강 하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비즈니스호텔 신축 붐 서면 롯데호텔 인근 260실 규모 부산비즈니스호텔 개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일대가 지난 2013년부터 비즈니스호텔 신축 붐이 일고 있다.

호텔신라는 자회사인 신라스테이를 통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대지 2776㎡)에 비즈니스호텔 개장을 준비 중이다. 호텔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층 406객실이며 지난해 1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7년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호텔도 해운대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관심을 끌고 있는 엘시티에 비즈니스호텔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조선호텔도 해운대해수욕장에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파라다이스 호텔도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급호텔에만 관심을 두던 업체들이 비즈니스호텔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젊은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특급호텔 대신 저렴한 비즈니스호텔의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27일에는 서면 롯데호텔 인근에 260실 규모의 부산 비즈니스호텔이 개관 돼 영업에 들어갔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물 포스코건설 시공자로 선정 돼

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던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이 자금조달문제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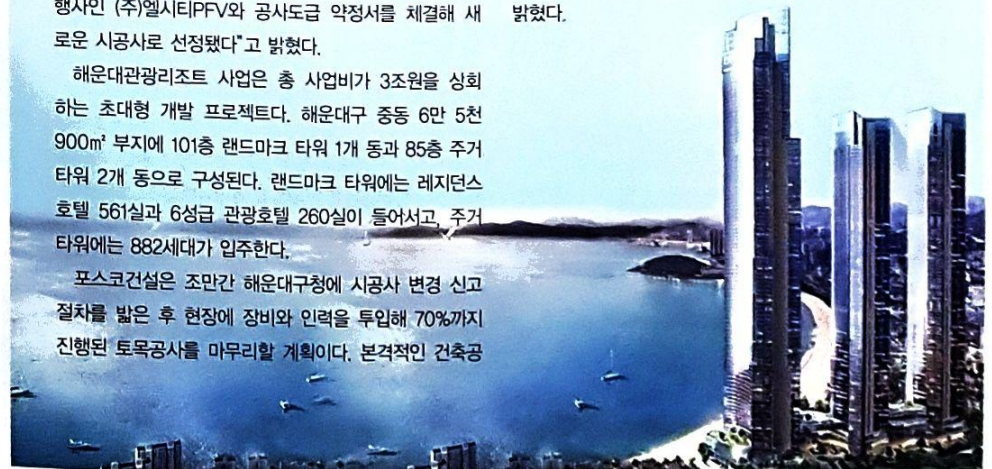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7일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주)엘시티PFV와 공사도급 약정서를 체결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조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해운대구 중동 6만 5천 900㎡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랜드마크 타워에는 레지던스 호텔 561실과 6성급 관광호텔 260실이 들어오고, 주거 타워에는 882세대가 입주한다.

포스코건설은 조만간 해운대구청에 시공사 변경 신고 절차를 밟은 후 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70%까지 진행된 토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건축공

사는 이후 돌입한다.

주거 타워 분양은 오는 6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엘시티PFV는 "시공 능력, 브랜드 가치, 자금 조달 용이성을 모두 고려해 포스코건설을 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시대, 피톤치드 방출량 자연휴양림 수준으로 나타나 태종대 유원지, 대신공원도 힐링공원으로 손색없는 것으로...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의 피톤치드 농도가 자연휴양림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와 서구 대신공원도 피톤치드 농도가 높아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힐링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심공원의 생리활성물질(피톤치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자연휴양림과 비슷하거나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도심공원은 동래구 금강공원, 해운대구 대천공원, 남구 이기대공원, 서구 대신공원, 영도구 태종대유원지 등 5곳. 모두 접근하기 쉽고 넓은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도심공원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공원에서 피톤치드 성분인 피넨, 리모넨, 보닐아세테이드 등이 평균 182~825pptv(1조분율, 공기중에서 물질의 부피가 1조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자연휴양림의 피톤치드 농도(161.5~5,578.7pptv)와 비슷하거나 일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공원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쉼터 2~3개 지점과 산책로 구간에서 실시한 것. 이기대공원이 평균 825pptv로 가장 높았고, 태종대유원지 784pptv, 대

신공원 663pptv, 금강공원 317pptv, 대신공원 183pptv로 나타났다. 특히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구간에서는 피톤치드 농도가 1,110pptv로 나타나 조사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만드는 생리활성물질 또는 식물체에서 지위 수단으로 방출하는 실균성을 가진 휘발성 물질을 말한다. 향균작용, 식물생장 제어활동 등을 하며 사람에게는 근육통, 감기, 정신평화,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내 도심공원의 피톤치드 농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건강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소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는 "조사 대상 공원은 대부분 산책로 구간을 걸으며 측정한 피톤치드 농도가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것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들 공원 내에서 산책하는 것이 한곳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산림욕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

부살 갈맷길 안전점검

9개 코스 270km 난간·안내시설 관리실태 확인

부산시가 갈맷길 안전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갈맷길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점검반은 제1코스 기장 임랑해수욕장~해운대 문탠로드 구간을 시작으로, 9개 코스 전 구간 270km를 일일이 둘러보며 세세하게 안전관리실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해운로 교각과 주요 구조물 균열여부, 지반 침하에 따른 위험여부, 안내판·이점표 부착실태, 화장실·정자·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상태, 소방시설 관리실태, 위험지역 경고문·CCTV설치실태, 안내요원 배치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갈맷길 안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6개 구·군도 해당 지역 갈맷길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실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호텔부산 신규 홍보모델로 한류 스타 대거 위촉

롯데호텔부산이 2015년 신규 홍보모델로 비, B1A4, 방탄소년단, 보이프렌즈, 빅스 등 5개팀을 위촉하고 대대적인 한류스타 마케팅에 나섰다. 이들 5개팀은 호텔의 홍보모델로 위촉됨에 따라 향후 1년간 대외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호텔의 한류 스타 이벤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롯데호텔부산은 김수현, 이민호, 빅뱅을 비롯한 여러 한류 스타들을 홍보모델로 위촉해 화제를 모았다. 또 이들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을 호텔에서 진행하며 서일본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부산의 일본인 관광객을 동경, 나고야 등지로 확대하는 등 부산 관광 시장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롯데호텔부산 김상한 총지배인은 "2014년

에는 장근석, 빅뱅, 이민호, 이준기, 김정은 등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했는데, 모두 합쳐 3천5백여명에 달하는 일본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며, "엔저로 인해 일본에서의 부산 방문이 주춤할 때조차 한류 마케팅은 큰 성과를 거둔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텔의 한류 스타 사업은 비단 롯데호텔부산 뿐 아니라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팬미팅 1회 개최 시마다 적게는 2백여개부터 많게는 1천8백여개의 객실이 쓰이는데, 호텔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숙박객 중 단 40%만이 롯데호텔부산에서 머문다. 한편 과반수의 방문객들은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 전역의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알

려졌다.

행사 일정을 봐도 부산 전역이 누리는 파급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팬미팅은 보통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실제 스타를 만나는 건 2일차 뿐. 그 외 시간에는 남포동, 광안리, 해운대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부산의 유명 먹거리를 체험하거나 재래 시장과 백화점, 면세점 등지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

호텔은 2015년 12월까지 기존과 같이 일본 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모델들의 팬미팅을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4, 3회 개최할 예정이다.

■롯데호텔부산 www.lottehotel.com/busan

PARADISE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 STAY VACATION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조금 더 여유롭고 힐링적으로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나는 엘리바리스 <스테이케이션 인 파라다이스> 패키지를 선보인다.(2015.6.1 ~ 7.16)

해택은 객실 1박과 해운대 바다와 맞닿아 경을 보며 따뜻하게 나이트 스우밍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아외 오션 풀 및 사계절 힐링 충전소 '오션스파 씨메르' 이용, 세계적인 음향 전문기업 아마하 코리아(YAMAHA KOREA)와 함께 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아미하 뮤직 오션 풀 라운지(YAMAHA MUSIC Ocean Pool Lounge)'와 오션 라이브러리

이용,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분 좋은 태닝을 만끽 할 수 있는 럭셔리 프라이빗 태닝 룸 이용, 달빛 내린 아외 수영장에서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모나이트 시네마(Moonlight Cinema)체험, 태종대와 해운대 주변 명소 등 부산의 이국 저곳을 여행 할 수 있는 레오(LEO) 투어 프로그램 참여, 2015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천국 최대 규모의 소니 플레이스 테이션 게임 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화려한 야경과 온은한 달빛이 비추고 있는 아외 오션 풀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경험할 수 있는

오션 풀 라이브 콘서트기 열리는 로맨틱 무드를 낼 수 있도록 와인이 제공되는 이츠 프라이데이나잇(it's Friday Night)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패키지 가격은 22만원 부터(세금 불사로 별도, 성인 2인 머린이 2인 기준, 객실 타입 및 뷰 그리고 요일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 시작하며 올해로 개장 50주년을 맞이해 2배로 더 넓은 아름다운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또한 만나 볼 수도 있다.

■ 객실 문의 및 예약 051-749-2111~3
www.busanparadisehotel.co.kr

HAERUNDAE GRAND HOTEL 해운대그랜드호텔 | THE G-Road Package

해운대그랜드호텔이 호텔 주변의 아름다운 해운대 산책로를 걸으며 힐링타임을 즐길 수 있는 로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탠로드 상품은 시티뷰 17만원, 비치뷰 20만원으로 디럭스를 1박과 로비라운지 라운드의 피쉬앤칩스와 생맥주 500cc 2잔, 굿네이버스의 트라이탄 물병과 라운드에서 블루레노에이드 테이크아웃 이용권 구성이다.

무비로드 상품은 시티뷰 17만원, 비치뷰 20만원으로 디럭스를 1박과 로비라운지 라운드의 애프터눈 티 세트(2인 기준), 굿네이버

스의 트라이탄 물병과 라운드에서 블루레노에이드 테이크아웃 이용권 구성이다.

문탠로드 상품은 시티뷰 17만원, 비치뷰 20만원으로 디럭스를 1박과 로비라운지 라운드의 피쉬앤칩스와 생맥주 500cc 2잔, 굿네이버스의 트라이탄 물병과 라운드에서 블루레노에이드 테이크아웃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비로드 상품은 시티뷰 15만원, 비치뷰 18만원으로 디럭스를 1박 CGV 영화관람권 2매, 굿네이버스의 트라이탄 물병과 라운드

에서 블루레노에이드 테이크아웃 이용권 구성이며, 비치로드 상품은 시티뷰 15만원, 비치뷰 18만원으로 디럭스를 1박과 호텔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래서 어육 2인 체험관과 굿네이버스의 트라이탄 물병과 라운드에서 블루레노에이드 테이크아웃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봉사료 별도/금, 토, 공휴전일 5만원 추가/저제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객실 문의 및 예약 051-740-0555



COLUM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神의 한 수

외래 관광객 1600만명, 관광수입 240억 달러,
신규 고용 6만명 달성을 이루자는 창조 관광의 역사는 현재진행형...



부산관광협회 부회장 장순복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굴뚝 없는 황금 산업임을 꿰뚫고 있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의 보문단지과 제주의 중문단지를 시작으로 관광개발을 이끌었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경주에서 가장 큰 왕릉 발굴을 지시했다. 발굴 경험이 부족

한 고고학자들이 시험용으로 발굴했던 무덤이 천마총이었다. 천마총 발굴을 끝낸 고고학자들이 황남대총을 발굴했지만 금관과 함께 출토된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말 그림이 그려진 말다래가 세상의 관심을 끌어 모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천마총 복원을 지시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관광을 경제로 보았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수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관광객이 외화 획득에 보탬이 된다며 요정에서 기생 관광을 끝낸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호텔에 갈 때 경찰차가 호송하도록 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관광 마인드를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6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과 근로 조건 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고품격 관광실현, 고부가 융복합 관광, 관광정보화, 관광산업 체질개선, 국외 여행 안전 제고 등 9대 문화 관광 정책을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목표로 정했다. 외래 관광객 1600만명, 관광수입 240억 달러, 신규 고용 6만명 달성을 이루자는 창조 관광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부산관광의 미래를 이끌 관광정책은 관광업을 하고 있는 관광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시너지(synergy: 각 기능의 공동 작용으로 인한 상승효과) 효과가 나타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익숙해지는 것이라 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동력으로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창조관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의 한수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contents: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사업 발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의 한수 가운데 으뜸은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복합 리조트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유치다. 정부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영종 지구에 카지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미국 동부 카지노 업체로 꼽히는 모히건(Mohagan)과 1조원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파라다이스 세가사미(한국 파라다이스와 일본 세가사미의 합작 법인은 이미 복합 리조트를 건설 중이다. 중국 리모와 미국 시저스 합작 회사 LOCZ도 인천 경제 자유구역 영종 지구에 건설할 복합 리조트 설계를 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카지노 유치를 위하여 미국 폭스사와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 오픈 카지노 도입은 "독이 든 사과", "도박도시라는 오명", "해위기업으로 빠져나갈 자본 유출 우려", "도박 중독자 천국" 등 카지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는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국회가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 경제 특별 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북항을 관광 중심의 특구로 지정해 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다. 토론에 나선 본인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부터 오늘

날까지 30년 넘도록 해외여행인수를 하고 있다. 관광객은 재미삼아 카지노를 즐기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베팅(betting: 내기, 도박)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해외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한국인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는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기가 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李光燾 이광요)는 오픈 카지노 허가를 평생 반대했다. 그가 누구인가. 싱가포르 특유의 제도를 견고히 지켜내며 서양의 옳지 않은 윤리 의식을 철저히 비판했던 인물 아닌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켄팅에 카지노를 개설한 뒤 싱가포르 국민들이 카지노를 즐기게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고 있는데다가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다는 국무회의 보고를 받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싱가포르 국민은 높은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하도록 했으며 도박 중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락했다. 강도 높은 안전장치로 카지노와 전시 컨벤션 시설, 쇼핑몰, 호텔이 어우러지는 복합 리조트는 부산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두 번째 신의 한수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다. 통영을 시작으로 밀양 얼음굴, 여수 해양 케이블카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팔공산 깃바위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 관광개발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제항동 케이블카는 거제 항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총연장 1.6km 식도에 8인승 곤돌라 5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리산권도 케이블카 유치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의 케이블카는 서구 천마산에서 영도 봉래산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서구 남부민동 천마산 해돋이길에 자리 잡고 있는 칠보사를 가본 적이 있는가. 저 멀리 대마도가

보이고 남항대교, 영도다리, 부산대교, 부산항대교가 오버랩되며 흰여울 마을, 부산타워가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을 지니고 있다. 아! 부산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는가하며 탄성을 지를 것이다. 천마산과 봉래산 사이에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여수 해양 케이블카를 뛰어넘는 세계적 명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세 번째 신의 한수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지급하고 있는 관광인센티브 예산을 유요커(遊客: 유객,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실시하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incentive: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제도는 예산만 낭비하는 계륜(魏倫: 큰 슬로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고사 영어)이 되었다.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지원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 신발을 신고 발등을 긁으려고 하면 결국 신발을 벗어야 한다. 원칙 없는 관광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낭비다. 전국 지자체가 경제 효과 분석도 없이 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부산만이라도 이 곳만을 걷어 치워야 한다. 타지 여행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부산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을 하고 부산 지역 관광업계가 행사를 맡아 진행하는 관광 상품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 80%가 서울 등 수도권권을 찾고 있다. 다시 찾고 싶은 부산,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의 한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토론이 전문 관광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기가 되었으면 한다.





옛 송정역 시민갤러리 문화공간으로 조성 대합실·역무실은 지역 작가들 사진·그림 전시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폐쇄된 등록문화재 302호 송정역사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됐다. 부산창조재단이 운영을 맡은 옛 송정역은 지난 달 15일 개관, 2016년 말까지 시민들의 쉼터로 운영된다.

현재 대합실과 역무실은 지역 작가들의 사진과 그림작품 10여점이 전시돼 있다. 또 대합실 앞 철길에도 예술작품이 들어섰다. 철창과 화분으로 기차를 상징하는 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시민들이 엽서를 써 철로위 우체통에 넣으면 100일 또는 1년 뒤 무료로 발송된다.

플랫폼은 공연장으로도 활용한다. 창조재단은 매주 토요일 플랫폼에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야외 전시·공연을 펼친다. 결혼식 사진이 없는 부부를 공모해 매월 한 쌍의 부부를 초청해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벌일 예정이다. 사진촬영과 분장 등은 재능 기부로 진행하며 일체의 비용은 창조재단이 지원한다.



부산창조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의 업선된 작품은 전시 기회 부여 및 다양한 송정역 홍보 이미지로 활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지역과 예술문화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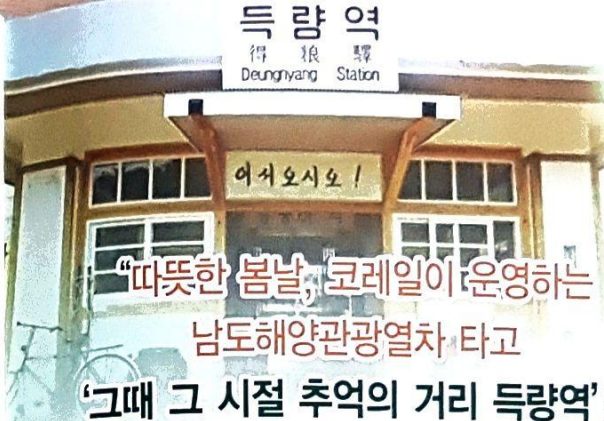
최근 국내 최고의 서핑 메카로 떠오르는 송정 바다, 그리고 나를 찾는 동해남부선 철길걷기, 이 모든 자연환경, 산업유산, 청년문화의 중심에 있는 송정역은 시민갤러리를 통해 지역재성과 지역문화발전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역 시민갤러리는 오전 10시~오후 7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쉼다.

철길과 플랫폼, 그리고 작은 불이 켜져 있는 역사(歷史)는 지난 시간 속 부른(부)이라 불리었던 한국인의 삶이자 기다림이고, 떠난 자의 뒷모습입니다.

송정역은 여느 문화재와 달리 역사적 사건이나 훌륭한 인물의 스토리는 없다. 하지만 평범한 한사람 한사람의 시간과 기억만큼의 이야기가 있고, 매일 떠나는 일곱 기차와 돌아오는 일곱 기차만큼의 이야기들이 70여년동안 쌓여 반짝거리고 있다. 한 걸음 걸음마다 허리를 숙여 반짝이고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시기를...

bejbusan@hanmail.net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거리 득량역”을 찾았습니다.”

풍금치는 역장으로 유명해진 1930년 건설된 경전선 철도역으로 보성군의 작은 간이역인 득량역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간이역 문화공간 프로젝트 실시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부산역에서 아침 8시 20분에 출발하는 남도해양관광 열차를 타고 삼랑진, 마산, 진주를 지나 가다보면 열차는 어느덧 매년 코스모스축제가 열리는 하동 북천역에 닿는다. 10여분 열차가 머문다는 안내방송으로 관광객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시골 흙냄새를 맡으며 철길을 걷기도 한다. 12시 10분 열차는 득량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그때 그 시절 승무원복을 입은 철도원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밖으로 나오자 아! 하고 감탄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70년대 추억의 거리가 그곳에 있어 시간 여행한 것 같은 착각속으로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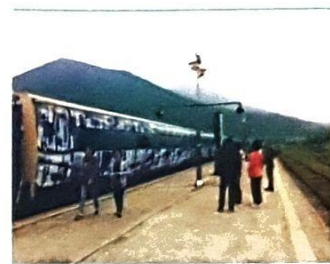
나팔바지에 교련·교복을 입고 찾던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역전 만화방, 행운다방, 이발관, 의상실, 문구사, 전파사, 포니카페 등 득량역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의 향수와 복고를 주제로한 다양한 콘텐츠가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익숙한 풍경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있었다.

득량이라는 지역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식량을 조달하고 적을 퇴치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 향수와 추억을 찾아가는 남도의 시골역 득량은 언제나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득량역 추억의 거리 관광을 마치고 산중턱, 산허리까지 초록세상으로 물든 보성 녹차밭을 방문한다.

영화 「선물」, 드라마 「여름향기」 촬영지로 유명해진 대한다원 관광을 마치고 별고 꼬막으로 늦은 점심을 먹고는 순천 정원박물관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 부산 도착은 9시20분이다.

김무용 기자



KORAIL 코레일관광개발

문의 및 예약 : 051-466-8120~2 www.korailtravel.com

주관 : KORAIL 부산경남본부 | 부산역 여행센터 051-440-2513

바다의 이정표 燈臺 燈臺이야기

부산의 대표적 관광자원 등대 70여개가 밤바다 비취

업어붙은 달 그림자 팔각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친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생략)

시인 고은선생의 '등대지기'다.

깊직한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에 한 줄기 빛은 깊은 베에
게는 생명과도 같다. 항로를 잃고 어둠 속 망망대해를 표류하
는 절망의 배를 향해 등대는 생명을 지키고 삶의 길로 인도하
기 위한 희망의 빛을 비춘다.

그러나 이제 등대는 뱃길을 인도하기 위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관
광자원화 되어 여행객의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안 경관이 수려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등대
가운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8개 유인등대를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가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한 유인등대는 부산
영도등대를 비롯해 울산 간절곶등대,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등
대, 인천 팔미도등대, 전남 여수시 오동도등대, 강원도 동해시
묵호등대와 속초시 속초등대, 제주도 우도등대 등이다.

이들 등대는 주변 자연경관과 역사성 등 지역 특성이 감안
된 주제에 맞춰 스토리텔링 등 각기 차별화된 콘텐츠가 기미
되 개발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등대 주변지역의 관
광시설을 확충하고 올레길 등 지역 탐방로에 등대를 주요 경
유지로 포함시켜 등대가는 길 등을 조성하는 한편 인터넷카페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바다미술학교, 해양문화교실 등 바다사
랑 탐방교육과 함께 음악공연 및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
사도 펼쳐진다.

국토부는 등대 해양문화공간 구축사업의 선행사업으로 특색
있는 100여개 유·무인 등대의 스토리텔링 작업의 일환으로
등대 여행서를 발간하고 스마트폰 등대 관광 앱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총 39개 유인등대 중 이번엔 지정된 8
개 등대를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해양 친수문화공간
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관림이 가능한 유인등대는 모두 41곳. 일부 등
대엔 체험숙소가 딸려 있지만 경쟁률이 워낙 세서 예약하기조
차 어렵다. 그밖엔 민박을 이용하는 방법 외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 숙박시설의 보충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등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체험프로그램
을 마련한 곳도 생겨났다. 부산 가덕도 등대는 1박2일 동안 등
대에서 해양체험을 실시하는 '체험숙소'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동안 초·중학생들이 2박3일간 머물며 등대 체험을 하는 '여
름 등대학교'를 운영 중이다. 오륙도 등대는 '여름생태체험교
실', 영도 등대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일등대 체험' 프로그
램을 마련했다. 등대관광의 정비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갈 미래
엔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지 짐작되는 흐름이다.

제외등대

부산지방 해양청은 남구 감만동 신감만부두 끝단에 위치한
제외등대는 건축미가 뛰어난 원형상태로 양호해 역사적 유물
로 영구보존키로 결정했다. 1905년 6월 대한제국정부 때 설
치 97년간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로 부산항의 역사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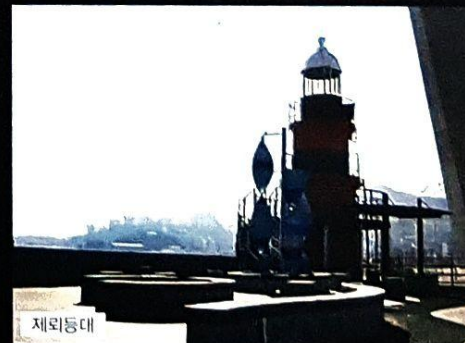
제외등대는 붉은색과 검은색 선이 있는 높이 7m석조원형으
로 가스등이다.

한때는 부산항 북방파제등대로 한차례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1년 신감만부두 건설로 등 위치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등
대의 기능이 현재 정지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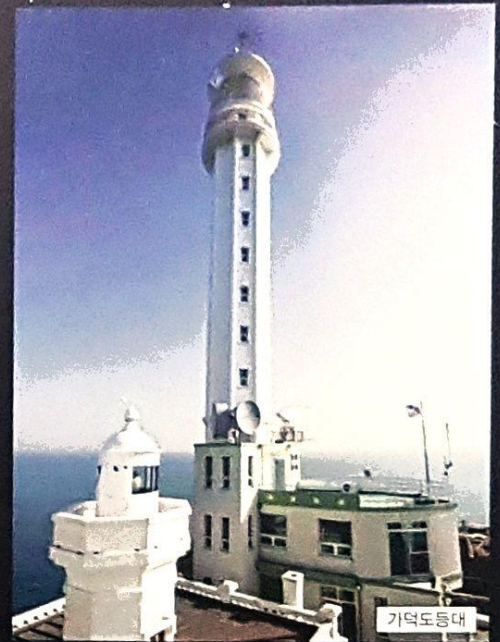
부산에는 1905년 부산 최초로 건립된 감만동의 제외등대,
1906년 최초유인등대 태종대등대, 1937년 부산항 수호신 오
륙도등대, 1909년 러·일 전쟁의 현장을 지켜본 가덕도등대
등 유·무인 등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가덕도등대

고대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덕도 등대, 옛 등대 시설은 사
무실과 숙소, 등탑이 연결된 복합건물 형태라서 중앙 높이
9.2m의 등탑이 세워져 있으며, 붉은 벽돌과 미송을 사용했고
출입구 천정에는 그 당시 함선의 상징인 오얏꽃 모양의 문장
이 새겨져 있으며, 함식으로 된 지붕은 부식방지를 위해 함석
위에 피치타르가 덮여져 있다.



제외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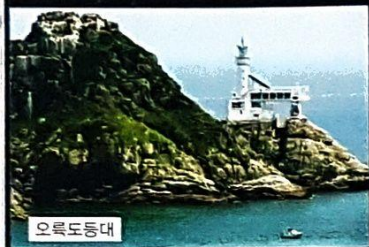
가덕도등대

가덕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자리잡아 동으로는 사하구 다
대포, 서남쪽은 거제도 동북바다, 북으로는 유라시아와 환태평
양의 관문이면서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건설한 부산항신항
(2006. 1. 19)과 접하며 진해서 용원동과도 접해 있다.

가덕도 등대는 근대 서구 건축양식, 건축재료, 의장수법 등
이 최초로 사용됐던 건물로서 당시 건립된 여러 등대들은 대
부분 개·보수로 인해 원형이 많이 훼손되는데 비해 상당부분이
건립당시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문화재
적 가치가 높다.

오륙도등대

선박들의 길잡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파성은 세찬 비
바람을 방패처럼 막아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솔섬은 소
니아가 자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송곳섬은 송곳처
럼 뾰족하게 생겨서 그같은 이름이 붙여졌고 수리섬은 예전에
독수리가 갈매기를 포획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굴섬은 가장 큰 섬으로 큰 굴이 있어 천장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한 사람 몫의 음료수가 될만하다고
한다.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등대섬은 인기 평평해 발성



오록도등대

영도등대

아구등대

이라 불리고 있다.

오록도등대를 한바퀴 돌면서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유람선은 중앙동 국제여객터미널, 용호동 선착장 그리고 태종대와 해운대 미포 선착장에서 탈 수 있다.

영도등대

부산항의 영롱한 불빛, 영도등대는 1906년 12월 시작된 영도등대의 처음 명칭은 목장이라는 뜻의 목도(牧島)등대라 하였으며 1948년 1월 4일 절영도(影影島)등대로 개칭하였다. 절영도라는 지명은 영도에서 군사훈련용 말을 많이 길렀는데 영도에서 기른 말들은 비호같이 빨라 손식간에 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하여 절영도라 불리었으며 1881년에는 절영도진(影影島鎭)이 설치된 바 있고 1951년 9월 1일 영도출장소(影島出張所)가 설치되었는데 행정편의상 절(絶)자를 빼고 영도(影島)라고 하였다.

100년이 넘는 시설노후로 2004년 새로운 등대시설물로 교체해 부산지역의 해양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새로 건립된 등대는 등대시설, 예술상품전시실, 자연사박물관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등대시설은 기존등대와 같이 백색의 원형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높이는 35m, 불빛은 40Km까지 나간다고 한다. (현재 안내원이 고정으로 배치돼 등대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국등대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다. 뱃길을 묵묵히 비춰주던 등대가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제 등대는 항로 표시뿐 아니라 정서적·미학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나 마

카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품격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 갈매길의 시작이기도 한 동해안 자락 31번국도 코스는 다양한 등대를 만난다.

대변항에 들어서면 마징가Z를 닮은 노란색 등대가 보인다. 그 뒤에 하얀 태권도복을 입은 것 같은 태권V등대가 등을 맞대고 섰다. 육안으로는 가까이 보이지만 대변항으로 들어오는 먼바다의 파도를 막기 위해 인공섬 형태의 '뚝 방파제'에 설치되어 있어 배를 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원래 두 등대는 장승을 본떠 만들었으나 천해대장군은 마징가Z를, 지하여장군은 태권V를 더 닮았다. 장승등대의 정식명칭은 '대변외항 남방파제등대'다.

기장대변등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와 4강 신화를 기념하는 등대다. 미사일 발사대를 닮은 빨간색 등대에 세 개의 다리가 축구공을 감싸고 있다. 이 축구공은 2002년 월드컵 공인구였던 '피버노바'다. 아랫부분에 출전국의 국기와 경기 성적이 기록되어 있다.

왼쪽등대는 갈매기등대고 오른쪽등대가 아구등대다.

부산 갈매길의 시작이기도 한 동해안 자락 31번국도 코스는 다양한 등대를 만난다. 등대를 만난다는 것은 항구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지만 기장군을 출발하여



동해안으로 오르며 만나는 등대는 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칠암항 등대를 빼 놓을 수 없다.

칠암항에서 만나게 되는 등대 중에서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구 클럽 등대뿐이다. 나머지 등대는 해안을 가로질러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만들고 양쪽에 세웠다. 칠암항에서 만나는 아구등대, 갈매기등대, 봉장어등대 그리고 문동마을 앞 옛 독이포로 불리던 문중포구를 지키는 하안 등대와 붉은 등대까지 이어져 있다.

2012년 조성된 갈매기 등대는 아구공 안에 갈매기가 날아가는 형상으로 아구 명예 전당 유치기원 차원에서 만들었으며, 아구등대는 부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구공, 배트, 헬멧을 조각가 박중만씨가 설계, 2010년 완성된 작품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구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고 벽면 안쪽에 선수들의 친필사인공 우송소감을 담고 있다. 갈매기 등대는 춘분과 추분이 되는 시기에 빙문처럼 원형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며, 칠암항 앞바다에 봉장어가 많이 잡혀 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노란색의 봉장어 형상 등대를 세웠는데 이들 모두가 정식 항로표지 법을 준수한 실제 사용하는 등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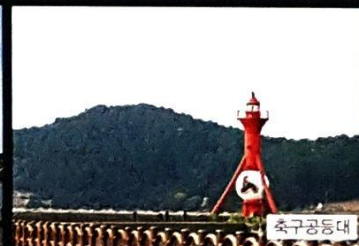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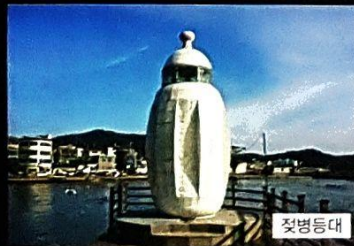
젓병등대

'젓병등대, 부산의 미래를 밝히다.' 젓병등대 아래 부착한 하트 모양 동판 영문이다. 젓병등대 의도는 부산의 밝은 미래, 의도를 갖고 세운 등대라 디자인에도 의도가 엿보인다. 벽면을 채운 디자인은 손과 발 프린팅. 모두 144명 영유아 손과 발을 하나하나 앙갓한 타일이 이색적이다.

연화구가 서암이고 2구는 신암이다. 젓병등대가 있는 곳은 가장 연화리 서암마을. 해운대나 송정에서 181번 시내버스를 타고 연서교회에서 내리면 된다.

부산 바다엔 등대 길이 있다. 포구 길도 있고 기차소리 길도 있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해양항만청이 남해안을 관광 명소로 띄우려고 애썼다. 젓병등대가 있는 연화리 일원은 등대 길에 들어간다. 젓병등대 아래 서서 바다를 내다보면 여기가 왜 등대 길인지 선연하게 드러난다. 이쪽도 등대, 저쪽도 등대, 젓병등대 말고도 개성 넘치는 등대들이 기장바다와 함께하고 있다.

bejbusan@hanmail.net



젓병등대

아구등대

갈매기등대



+ 공모주제

**Imagine Your Korea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전 세계 1,400만 명 이상의 여행자가 찾는 관광의 나라 한국은 시사시할 다양한 매력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관광솔루션 'Imagine Your Korea'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5가지 키워드에 맞는 사진을 응모해주세요.



K-FOOD

세계적 다양한 식재료와 새로운 요리법으로 즐기는 독특한 먹거리



K-WAVE

세계적으로 감성을 신선하게 자극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



K-SPIRIT

한국 전통을 구성하는 무한한 창의성과 열정



K-PLACE

현대적 감각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인의 신선한 평소



K-STYLE

트렌드선더의 의미를 쉽게 하는 세련되고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 공모개요

- 공모 자격 : 제한 없음
- 공모 방법 : 온라인 접수 kto.visitkorea.or.kr 알림) 공모전) 관광사진공모전
- 접수 기간 : 2015년 6월 16일(화) ~ 30일(화), 17시까지 (보통일)
- 공모 부문 : 2014년 1월 이후 촬영 사진으로, 1인당 5점 이내의 미 발표작, 출판사진 파일은 일체 반한하지 않으며 최종 입상작에 한해서만 허용함
- 출품 규격 : JPG파일(RGB파일)로 사이즈 2,200x3,200 Pixel 이상
* 슬라이드 사진의 경우 인쇄사진을 소켓한 파일로 응모 가능 (단, 입상 시 인쇄사진과 필름원본 제출)
- 입상작 발표 : 2015년 8월 17일(예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게시 및 개별통지

+ 시상내역 : 총 100점 | 4,330만원

대상	대통령상	1점	500만원
금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	300만원
은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2점	200만원
동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3점	100만원
특별상 외국인 부문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1점	50만원
특별상 네티즌 선정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1점	50만원
입선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91점	30만원

+ 유의사항

- 합성/조작/변형된 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 작품이 아니더라도 연사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도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을 주최 측에 반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공식 공모전 출품을 금지합니다.
- 입상작품의 저작권선 일체(저작권, 저작인격권 등을 포함)는 한국관광공사에 귀속되며, 입상작품은 입상작 전시회 및 입상작 도록/엽서집 등의 제작에 활용되고, 공사 사진갤러리에 등재/소개되어 국내외 한국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 활동과 홍보물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행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진작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물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은 예심 통과작에 한해서 개별연락을 통해 초상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 동의서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220-170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9층 홍보물제작팀(T.033-738-3353, 3343)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43rd KOREA TOURISM PHOTO
CONTEST 2015

2015.6.16(화) ~ 6.30(화)
오후 5시까지



HOTEL PHOENIX



대회의장 스위트룸 로비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기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